



분당서울대병원과 KT간 MOU 체결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제6

분당서울대병원-KT, '미래병원' 선도 협약

국민보건-공공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병원 최초 이음5G 융합서비스 구축

분당서울대병원(병원장 백남중)은 DX(디지털혁신)를 통해 '미래병원'을 선도하고 국민 보건 수준 향상 및 보다 나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KT(대표이사 구현모)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병원 최초 이음5G(특화망) 융합서비스 구축을 통한 공공의료 선도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

단 병원 구축을 통한 미래 병원 선도 ▲의료 DX 산학 협력모델 발굴 및 동반 해외 진출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분당서울대병원-KT 컨소시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5G 융합서비스 모델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 중 공공의료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이음5G 인프라 및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공공부문의 5G융합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선도 및 적용하는 사업이다.

분당서울대병원과 KT는 위 사업 중 공공의료 분야에 지원했으며,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의료 ICT를 선도하는 분당서울대병원과

세계 최초 5G를 상용화한 KT의 컨소시엄은 공공의료 서비스 성공을 보장하는 시너지라는 평가를 받으며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분당서울대병원-KT 컨소시엄은 총 54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5G망 기반의 ▲자동주행 전동휠체어 ▲진료재료·약품·린넨 자율 이송 ▲스마트 시뮬레이션센터 등 공공의료 효율화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자의 안전 및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비대면 의료진 교육을 활성화해 첨단 병원의 모습을 실현할 계획이다.

김대성 기자

광명시 도시통합운영센터, 실시간 CCTV로 절도 혐의자 '추적'

경찰서와 유기적 공조로 신속 검거

광명시 도시통합운영센터가 범죄에 취약한 심야시간대 실시간 CCTV 모니터링으로 절도 혐의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지난 6월 25일 새벽 4시 20분경에 철산상업지구 내에 쓰러져 있는 만취자 주변을 배회하던 수상한 혐의자를 발견했다.

이후 동선을 추적하던 중 가장 절도를 확인하여 상황을 즉시 광명경찰서에 전파하고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광명경찰서는 추적 끝에 절도 혐의자를 검거했으며, 혐의자 검거에 공을 세운 관계요원은 지난 1일 광명경찰서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광명시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관계요원 27명이 4초 3코대로 3,160대의 CCTV로 24시간 실시간 관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112센터 긴급 영상 지원 ▲119 긴급출동 지원



광명시 도시통합운영센터가 절도 혐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관계요원이 지난 1일 광명경찰서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재난상황 긴급대응 지원 등 스마트 도시안전망 서비스를 운영해 광명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경찰서와 긴밀한 협력 체계로 시민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지

능형 영상 분석 시스템 등을 통해 CCTV 관제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광명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규 기자

주택관리공단 경기지사, 주거취약계층 대상 키오스크 교육

(무인정보 단말기)

디지털기술 두려움·소외감 해소

주택관리공단 경기지사 소속 26 관리소는 지난 3월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과 고령층 입주주민들을 위해 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 교육 체험존을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입주 주민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두려움과 소외감 해소를 위해 병원, 카페, 등본 발급 등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주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험이다.

체험존 운영은 주택관리공단 화성태안 8 관리소 산본 가아, 매화, 주몽, 안산 고잔 1, 16, 17, 군자 13 등 26개 관리소를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주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체험자들의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체험존 체험을 통해 그동안 두려웠던 마음들이 해소되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배움의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창호 주택관리공단 경기지사장은 "앞으로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공공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 입주주민들이 디지털 시대와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관리공단 경기지사가 공공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 위해 찾아가는 키오스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관리공단 경기지사 제공

도와주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고 약속했다.

장순철 기자

파주시, 폐지 줍는 어르신 37명 냉방용품 지원

파주시는 오는 8일까지 관내 폐지 줍는 어르신 37명을 대상으로 냉방(안전)용품 지원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냉방(안전)용품지원 및 안전교육은 여름철 폭염대비 안전사고 발생 예방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지난 5월 민간협

력기관, 고물상 업체, 통(리)반장 및 주민제보 등을 통한 발굴 조사를 실시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지원 물품은 안전조끼, 휴대용 선풍기, 보냉물병, 쿨토시 등이며, 손수레 이동 중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손수레에 경광등과 경적벨을 설치할 예정이다.

안전교육은 어르신들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노인복지 담당자가 폭염 예방, 교통사고 위험대비 등 폐지 수거 시 필요한 안전수칙을 교육할 계획이며, 시는 연 2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희진 노인장애인과장은 "물품 지원과 안전교육으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여름철 무더위에 따른 안전사고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연식 기자

■ 새얼굴

"복지치안에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이재경 남양주남부경찰서장

남양주남부경찰서 제37대 서장으로 이재경 총경이 지난달 30일 취임했다.

전라북도 익산 출신인 이재경 남양주남부경찰서장은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경찰학 박사)을 졸업했으며, 1989년 순경으로 임용됐다.

이후 경기북부청 일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서울청 성북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정보국 정보과 3계장, 서울청 경무부 경무과, 서울청 정보관리부 치안지도관, 전북청 부안경찰서장, 경기북부청 정보외사과장 등을 역임



했다. 이재경 서장은 "사회적 약자(아동·여성·노인·장애인)와 범죄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고 따뜻한 경찰이 곁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복지치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특히, 남양주는 다산·왕숙지구 등 신도시 조성으로 지속적 인구가 유입돼 치안 중심 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어 시민을 위한 최고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화우 기자

"피해복구·추가 피해방지에 집중"

서승현 용인소방서장

제16대 용인소방서장으로 서승현 소방준감이 지난 1일 취임했다.

서 서장은 취임식 대신 첫 공식 일정으로 치안구 김량장동 용인중앙공원 현충탑 참배를 한 후 폭우에 취약한 지역을 방문해 안전점검에 총력을 기울였다.

서 서장은 1989년 소방조직에 입문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경기도소방학교 지원과장, 일산·화성·이천 소방서장, 경기도소방



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소방감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다양한 행정경험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업무기획 능력과 현장 지휘통솔능력을 겸비했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갖춘 지휘관으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서 서장은 "폭우로 인한 재난상황을 확인하고 피해복구 및 추가 피해방지에 집중하겠다"며 "풍수에 재난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난구조 및 소방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용 기자

"기본에 충실한 소방행정 펼칠 것"

김인겸 안양소방서장

"시민 중심의 소방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8대 안양소방서장으로 취임한 김인겸 서장의 취임소감이다.

김 서장은 1990년 공직에 입문해 소방재난



본부 대응전략팀장과 파주소방서장, 화성소방서장 등 지휘부서와 소방정책부서를 두루 역임했다.

김 서장은 "기본에 충실한 소방행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경석 기자

"시민의 안전과 행복 위해 최선"

정상권 양주소방서장

신임 정상권 양주소방서장 취임식이 지난 1일 소방서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정상권 서장은 부산 출신으로 1989년 부산소방본부에서 처음 임용된 후 포천소방서장,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장, 동두천소방서장, 파주소방서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하며 7월1일자로 제9대 양주소방서장으로 취임했다.

또한, 국내 주요 구조활동 및 해외 구조활동을 다수 수행하며 현장 일선에서 솔선수범하



여 동료들의 귀감이 됐고 특히 훌륭한 열정과 리더십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정상권 서장은 업무와 현장활동에 임함에 있어 항상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직원간의 존중, 업무에 대한 자율과 책임, 초심과 친절함을 잃지 않기를 강조했다.

정 서장은 취임식을 통해 "직원의 적극적인 소통과 화합을 통해 양주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호민 기자



고양시가 신속한 민원처리에 기여한 담당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자를 선정해 지난달 29일 최우수자를 표창했다.

고양시 제공

고양시, 상반기 민원처리우수자 18명 표창

고양시가 신속한 민원처리에 기여한 담당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자를 선정해 지난달 29일 최우수자를 표창했다.

선정된 민원처리 우수자는 총 18명이며 최우수자 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대상자는 유기한 단순민원 부문에서 ▲생태하천과 박소현 주무관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박선민 주무관, 복합민원 및 협의우수자 부문에서 ▲일산서구 시민봉사과 서희선 주무관 ▲덕양구 청소행정과 임소운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은 수상자들에게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시민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시킨 노고와 시정발전을 위한 적극행정에 감사를 표하고, 민원 담당자들이 일선에서 느꼈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처리 담당자의 사기진작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반기별로 민원처리 우수자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 인사

양평군

- ▷4급 진보 ▲문화복지국장 심준보 ▲경제산업국장 오홍모 ▷5급 진보 ▲행정담당관 윤건진, ▲감사담당관 최인성 ▷파견근무(교육) ▲건축과장 정전환 ▲감사담당관 한영란 ▲양동면장 최병현